



에쁘꼬 창립 61주년을 기념하는 'Re : Informel(리: 앵포르멜)' 전시 오는 11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 열린다. 최재창 '청실홍실 시리즈'(왼쪽), 신호재 작 'Rumination-일월오봉도'.

자유롭고 감각적인 추상미술 '에쁘꼬'의 어제와 오늘

광주 추상미술 단체 (사)현대미술 에쁘꼬(에쁘꼬)는 지난 1964년 창립됐다. 새로운 예술에 대한 각성, 시대적 요청에 따라 광주 중심의 젊은 작가들이 의기투합했다. 당시 창립 멤버로 김종일, 명창준, 박상섭, 이세정, 조규만, 최종섭 작가가 참여했다.

'에쁘꼬 기획전-6인작가 조명전' 11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 김혜선·서은선·신호재·우제길·윤부열·최재창 작가 작품 한자리에

전후 한국 화단에서는 앵포르멜(Informel)이 미술계에 대동했다. 불안과 실존의 문제, 그리고 작가적 자의식 등과 맞물려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 '앵포르멜-Informel'은 말 그대로 '형식이 없다'라는 의미다. 자유롭고 감각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추상미술 운동을 일컫는다. 오해성에 따르면 "단순한 서구 양식의 수입이 아닌 '살아 있음' 그 자체에 대한 회화적 기록이자 내면과 존재에 대한 감각적 저항"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예술을 창조하려는 집단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에쁘꼬(이사장 최재창) 창립 61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재발견하고 미래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는 11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 주제는 'Re : Informel(리: 앵포르멜)'. 오늘날 직면한 사회문제를 예술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취지를 담았다. 'Re'는 되돌아보고, 재구성하며, 재점화한다는 뜻을 전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제3기를 출범한 에쁘꼬 회원 중 원로, 중진, 청년 총 6명 작가를 선정해 청년 큐레이터들과 1대 1 매칭으로 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혜선, 서은선, 신호재, 우제길, 윤부열, 최재창 작가의 작품을 청년 큐레이터들이 해설을 했다.

김혜선의 '장주지몽(莊周之夢)'은 우리 삶에 드리워진 거대한 파도를 연상케 한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선은 흐름을 형성하며 작가의 내면의 풍경을 드러낸다. '장주지몽'은 장자가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나비인지 나비가 자신인지 알 수 없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배근영 큐레이터는 "작품 속 풍경은 하나로 특정할 수 없지만 어딘가에 존재하는 장소가 된다"며 "작품은 현실과 비현실 경계 중심에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고 평한다.

서은선의 '다층의 자아'는 무엇보다 색감의 강렬함이 눈에 띈다. 작가는 자신만의 회화적 언어로 인간 내면에 잠재된 수많은 의식과 이미지, 기억 등을 구현했다.

류시원 큐레이터는 "서은선 작가의 작업은 단지 이미지나 형식의 조합이 아니다"며 "작품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관객은 그 안에서 관계를 사유하며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고 말한다.

신호재의 '일월오봉도'는 매일 보게 되는 일상의 풍경을 작가의 섬세한 시각으로 단순화한 작품이다. 그림에는 작가의 내면에 드리워진 남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아련한 정서가 녹아 있다.

위혜영 큐레이터는 "작가는 자연을 그저 재현하는 것을 넘어 자연을 감각과 기억의 영역으로 끌어 올린다"며 "그의 작업은 동양적 여백과 정서를 지니

고 서구적 색채로 동서양 회화의 미학을 새로운 방식으로 교차시킨다"고 언급한다.

우제길의 '2023-Ray-A-3A'는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빛을 포착한 작품이다. 그에게 빛은 청소년 시절에 봤던 반딧불이와 추상이라는 개념과 어울려 예술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테제다.

구민주 큐레이터는 "오랜 세월 반딧불이의 빛을 쫓아 온 작가와 그가 남긴 족적은 또 다른 이정표가 되어 후대에 남는다"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음 세대에 나아가 방향을 이끄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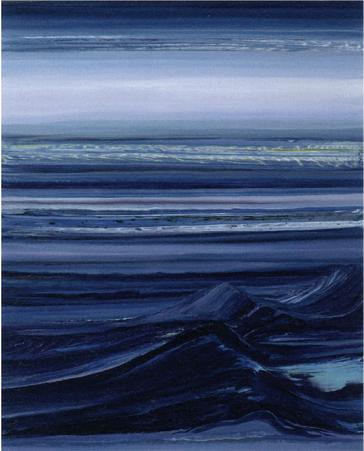
윤부열의 '시간의 선 '흔란''은 비정형의 형태들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조형화했다. 보는 이에게는 자연물이 아닌 작가의 의식에 깃든 감정과 경험의 산물로 다가온다.

이서진 큐레이터는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멈추었던 시기에 제작되었다"며 "작품 속 수없이 겹친 선들은 섬세하고 강한 밀도를 보여준다"고 얘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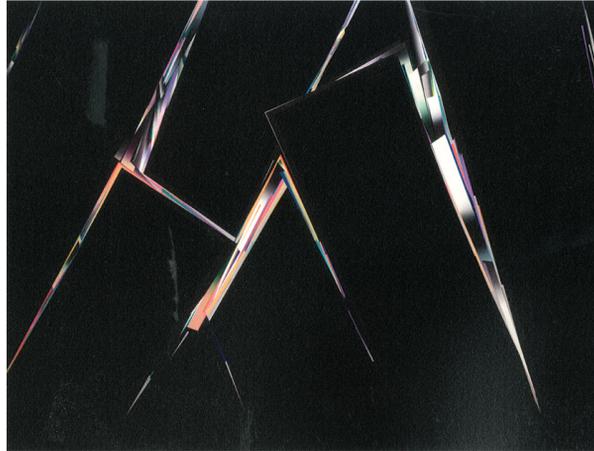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최재창의 '청실홍실 시리즈'는 우리의 정서에 내재된 청실홍실을 현대적 의미로 형상화했다. 신호재의 '금실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은 전통을 넘어 오늘과 내일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최시은 큐레이터는 "작품 속 형태는 음양오행의 의미하는 운동과 변화처럼 서로 융합하고 포용하면서 서로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며 "전통을 현재의 맥락 속에 녹여내려는 의지이며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 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혜선 작 '장주지몽'



우제길 작 '2024-Ray-A-3B'

일본에 퍼지는 우리 선율의 아름다움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합창단 '후쿠오카현 대합창제' 초청

8일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

"산속에 핀 도라지꽃, 하늘의 빛으로 물들어있네. 옥색치마 여민 자락 기다림에 물들어있네, 물들었네."

아름다운 우리말 가사가 일본 후쿠오카에 부드럽게 울려 퍼진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합창단(광주여성합창단)이 오는 8일 일본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에서 아름다운 합창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2025 후쿠오카현 대합창제' 초청으로 성사된 자리다.

유치원생부터 시니어 합창단까지, 지역 200여 개 팀이 참여하는 일본 대표 아마추어 합창제에서 외국 합창단이 공식 초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병국 지휘자, 이유정 반주자, 남영숙 단무장을 비롯한 42명의 단원은 정성껏 준비한 곡들로 광주의 감성을 후쿠오카 무대에 전한다. 이들은 고운 선율에 평화와 화합의 염원을 실어 일본 무대에 전하며, 예향 광주를 알리는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여성합창단은 자연의 정취를 노래한 '도라지꽃',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고향의 봄'을 노래하며 우리 가곡의 아름다움을 전할 예정이다. 일본 관객을 위해 희망찬 내일을 노래하는 사카모토 히로미의 합창곡 '떠나는 날에'도 함께 선보인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합창단 공연 장면.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합창단 제곡>

합창제 외에도 현에서의 버스킹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교류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남영숙 단무장은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에 예향 광주의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공연이 한-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G.MAP 신임 센터장에 김허경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 선임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G.MAP, 지맵) 신임 센터장에 김허경(사진)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가 선임됐다.

광주시는 2일 지맵 센터장에 김허경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센터장은 2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했다.

신임 김 센터장은 전남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전남대 예술대학 1호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큐레이터협회 회원 및 미술평론가로 서울과 지역을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기본계획수립운영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으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10주년 아카이브전 '헤테로포니: 10주년의 연구' 연구 게스트큐레이터로 활동했다. 지금까지 평론 '백남준의 '행위자 네트워크' 드로잉'을 비롯해 '호남근현대미술사', '근현대광주사람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의 인문자원과 도시예술 프로젝트 연구', '기억기능과 집단기억의 예술, 모뉴먼트와 메모리얼' 등 다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광주시의 AI·문화·산업 융합정책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를 기반으로 국내 기관 연대, 국제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G.MAP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광주가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센터장 임기는 2년이며 2025년 6월 1일 까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비발디 사계'

첼로의 깊은 울림으로



'내셔널솔리스트앙상블'

정기연주회... 5일 광주예술의전당

익숙한 클래식 명곡이 첼로의 깊은 울림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내셔널솔리스트앙상블이 제9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이번 무대는 '첼로의 비발디 사계'를 주제로, 비발디의 '사계'를 첼로 솔로 버전으로 편곡해 선보이는 자리다.

지휘는 서울대 작곡과와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지휘과를 졸업하고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활동 중인 김영언이 맡는다.

솔리스트로 나서는 첼리스트 이후성은 조선대 음악교육과를 거쳐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석사 및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친 전문연주자로, 현재 광주시향 부수석으로 활동 중이다.

공연은 레스피기의 '고풍스러운 무곡과 아리

아 제3번'으로 시작된다. 바로크의 우아한 정서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이 곡은 현악기의 섬세한 조화와 품격 있는 선율로 관객의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어 헨델의 '파사칼리아'가 연주되며, 화려한 기교와 앙상블의 정수를 보여준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비발디의 '사계'. 익숙한 이 곡은 봄·여름·가을·겨울의 풍경과 감정을 음악으로 그려내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표적인 고전 레퍼토리다. 이번 공연에서는 첼로 솔로 편곡을 통해 더 풍부한 음색으로 사계의 정취를 새롭게 전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창단한 내셔널솔리스트앙상블은 광주·전남 지역의 유망한 연주자들이 모인 현악 앙상블로,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다양한 기획무대를 통해 지역 공연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